

기록학 용어 사전

- 한국기록학회 엮음. 2008. 역사비평사-

이 해 영*

우리나라에서 기록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부딪치는 어려움은 용어의 난해함이다. 2008년 3월 한국기록학회에서는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기록학 용어 사전을 출간하였다. 기록학계 및 기록관리 실무자들에게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이 사전은 ‘기록 관리 전문가를 위한 지침서: 기록 관리 분야의 생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용어 표준화 작업’이라는 모토 하에 진행되었으며, 중간 결과물을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연구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보완해 본 사전을 출간했다고 한다. 안병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전에 대해 기록학 분야에서 “외래 용어를 수용하되, 정확하고 창조적으로 생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

런 점에서 볼 때 이 사전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고 추천하였다. 사전의 집필은 기록학계에서 또 실무현장에서 활발한 학술 연구 활동을 해온 여러 전문가들의 참여로 이루어져 신뢰도를 더하고 있다.

1999년의 공공기록물관리법 제정과 더불어 기록학 분야가 활성화되면서 2008년 현재 기록학을 대학원 석사·박사 과정에서 제공하는 곳이 18곳에 달한다. 학사 과정에서 기록학 관련 강의도 여러 곳에서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록학은 문헌정보학, 역사학, 행정학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가 연계되어 있으며, 기록학 분야의 많은 용어들도 이러한 학문 분야에서 제각기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신생 분야여서, 미국이나 영국, 호주, 중국, 일본 등에서 실무 관련 업무를 통해 개발된 매뉴얼이나 표준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용어들을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제시되는 용어들은 표준화가 되지 않아, 같은 뜻의 용어가 다르게 인식될 수 있기도 하고, 번역되는 외국 용어도 통일되지 않은 상태로 혼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용어에 표준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공통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용어를 제시함으로써 기록학 용어들의 표준화를 앞당긴 기록학 용어 사전의 시의적절한 출간은 반갑기만 하다.

사전의 구성은 크게 ‘제1부 현대 기록 관리’와 ‘제2부 전근대 기록 관리’로 나뉘어져 있다. 제1부는 현재 우리나라 기록학 전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용어와 외국 기록관리 제도에서

사용되는 중요 용어를 중심으로 총 665개 용어(채택어 543개, 비채택어 122개)의 표제어를 수록하였으며, 제2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전근대 기록관리 제도에서 중요한 용어를 중심으로 총80개의 채택어로 표제어를 제시하였다.

특히 부록으로 분류 색인, 영어 색인, 참고 문헌을 수록하였는데, 분류색인에서는 비채택어를 포함한 모든 용어를 기본용어, 평가, 분류·기술, 서비스, 경영, 전자 기록, 보존, 국내 법률 및 제도, 외국 법률 및 제도, 전근대 용어의 10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영어 대역어와 함께 수록하였다. 이 분류 색인은 주요 용어들을 분야별로 묶어 제시하여, 각 분야의 주요 핵심 개념들을 한눈에 파악해볼 수 있도록 한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영어 색인에서는 1부에 수록된 모든 용어의 영어 대역어를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여 표제어와 함께 수록하였다. 마지막 참고 문헌에서는 각 용어 항목의 말미에 제시되어 있는 참고 자료를 포함하여 기록학 용어 사전을 편찬하는 데 사용된 주요 참고 문헌을 수록하였다. 많은 용어의 정의 및 해설 말미에 참조 문헌을 제시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기록학 분야를 처음 공부해야하는 학생 및 실무자들에게 부록의 참고 자료는 좋은 정보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용어의 제시에 있어서는, 각 용어에 대해서는 표제어를 주고, 표제어 옆에 파란색 화살표(➡)로 표제어가 비채택어인 경우 채택어를 지시하고(-을 보라 기능), 용어 말미에서는 같은 화살표(➡)로 관련 표제어도 지시하였다(-도 보라 기능). 제1부의 현대 기록 관리 용어는 대부분 외국어 대역어가 같이 제시되어 있는데, 영어,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등이 제시되어 매우 유용하다.

기록학 용어들이 여러 나라에서 같은 의미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외국어 대역어 표시와 이에 대한 색인의 제시는 매우 중요한 업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 국가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 경우에는 용어의 정의 및 해설 부분에 문두에 [미]- 미국의 기록학 용어, [캐]-캐나다의 기록학 용어 등으로 표기하였는데, 그 외에 영국[영], 호주[호], 중국[중], 일본[일], 유럽연합[유], 북한[북] 및 우리나라 법령의 용어는 [법] 등이 따로 표기되었다. 이렇게 실제 다양한 국가의 제도나 기관 등이 구분되어 표시된 것도 이 분야의 연구자들을 위해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옥의 티들로 보이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들자면, 먼저 미채택어에서 채택어로 지시하는 -을 보라 기능과 관련 용어를 안내해주는 -도 보라 기능을 하는 화살표가 같은 크기와 색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물론 용어 아래에 설명이 없이 화살표가 있으면 채택어로 지시하는 기능으로 인식을 할 수는 있겠지만, 명확하게 구분되었으면 혼돈 없이 참조하기에 더 편리했을 것이다. 또한, 하나의 용어에서 다른 참조 용어를 제시한 경우에도, 참조 용어에서는 원래 용어가 다 제시되지 않아 아쉬웠다. 예를 들면, ‘기능 모형’의 해설 말미에는 ‘OAIS 참조 모형’에 대한 참조 표시가 있는 반면, ‘OAIS 참조 모형’에서는 ‘기능 모형’에 대한 참조가 없다. 상호참조 표시가 다 되어 있었으면 밀접한 관련 용어들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을 보라 화살표로 채택어로 유도된 비채택어들도 채택어 아래에 특별 표시와 함께 제시되었다면, 사용이 장려되는 용어와 그렇지 않은 용어들을 같이 한눈에 익힐 수 있었겠다는 아쉬움도 있다. 또 다른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 영문 표제어들이 영문 색인에

포함되지 않고, 우리말 용어의 영어 대역어만 영어 색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말의 ㄱ - ㅎ 까지의 용어 정의가 끝난 후 영문 표제어들이 알파벳순으로 제시되지만, 부록의 영어 색인에 영문 표제어까지 포함되었다면, 처음부터 본문이 아니라 색인으로 바로 간 이용자들에게 편리했을 것이다.

이 사전은 기록학 분야의 학생, 연구자, 실무자들이 이제 통일된 용어로 상호 간에 학술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기록학 분야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전반적인 핵심 용어들을 분야별로 익힐 수 있는 좋은 정보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전의 편찬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신 집필진 및 여러 참여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이 사전의 편찬이 기록학 분야의 정립에 큰 이정표를 마련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